

이렇게 들었다

II 역사교과서 왜곡

진실 덮으려 하다니

지난 10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시립병원 영안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출신 황옥임(85) 할머니의 영결식이 열렸다. 주위에 위안부 출신인 것을 숨기고 살아온 황 할머니는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에서 중풍을 앓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황 할머니에게 이같은 아픔을 남긴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하기는커녕, 역사교과서조차 이 문제를 빼버리는 등 후안무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은 <점수일체지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범부들은 소견이 잘못된 까닭에 사견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직 어리석은 지만을 생각해 무익(無益)한 일을 구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이 번뇌되어서 은애(恩愛)의 그물만을 구하고, 미혹의 생활을 사모하여 이곳 저곳을 오고가며 노닐고, 심목을 풀었기 때문에 음(陰)·노(老)·치(痴)의 번뇌가 윤회를 끝없이 반복해 하며, 남을 원망하여 해치려는 마음을 불꽃같이 일으키므로 그릇된 행위로 죄를 지으며, 온갖 은애와 무명에서 나오는 여러 번뇌를 늘 생각해 마음에 지니, 그 의식을 결박하고 있으므로 삼계(三界)를 출아 다니게 마련이니, 그 괴로운 액(厄)과 포악한 행위가 끊어 오가게 되는 것이다."

진실로 잘못을 참회하고 상처를 드러내어 치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실조차 없었던 양 가장하려 드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역사왜곡은, 끝없이 번뇌와 윤회의 반복 끝에 역사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아무리 일본이 진실을 덮으려 발버둥쳐도 역사는 결코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덮어주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35개 항을 들어 수정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이미 일본내의 합론이나 정치권에서조차 실종돼 버렸다 한다. 오히려 일본 총리의 8월 15일 아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재수정 거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끝까지 간다'는 강경대응론이다. 우선 4차 대일 문화 개방 연기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조영길 함창의장의 방일취소, 9월 초로 계획됐던 일본 해상자위대 연합함과 호위함의 입항 거부, 다음달 6일 열릴 제 9차 한-일 문화교류 국장급회의 개최 연기 등 잇따른 조치에 취해질 예정이다.

또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제기하고,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군대위안부 문제를 누락시킨 일본을 강하게 규탄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질서와 규범으로 마지못해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보다는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경제력에 걸맞는 위상을 되찾는 일이 현명한 처신이다. 이은자 기자

환경 친화적 추모공원 만들라

물자 세상보기

최근 들어 화장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잘못된 장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화장장 시설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우리 가족, 향후 우리 모두의 안식처가 될 추모공원이 혐오 시설로 기피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는 극단적인 유지반대운동이 반복되고 있다.

화장장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침해나 환경오염, 교통혼잡, 생활불편의 야기 등 경제적 이유와 정서적 측면에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데 기인한다. 화장장 설치 반대는 어떤 특정지역 주민들의 지

역이기주의로만 타할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잠재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죽음과 관련된 장례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한, 화장장이 지역사회의 필요한 주민친화적 추모공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화장장을 혐오 시설이 아닌 지역편익시설인 추모공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어떻게 화장장을 지역내 편익 시설인 추모공원으로 인식되도록 국민 의식을 전환할 수 있겠는가. 먼저 추모공원이 현대화된 환경친화적인 시설인

주민들 "화장장 반대" 극단적 지역이기주의

'유치하면 오히려 혜택' 정부 차원 제도 마련

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추모공원은 시설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지나친 우려감이 불식되도록 충분한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 입장에서 시설설치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주민들도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는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추모공원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보다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현대화된 추모공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주변 부지이용 계획,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피해와 혜택 등의 정보공개와 아울러 사후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추모공원 설치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추모시설은 그 지역내 지역개발정책과의 연계하여 지역내 공공시설의 정비나 지역기반시설의 설치계획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수요자의



이필도

서울보건대학

장례지도학과 교수

지역주민의 반발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제 바람직한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특정 지역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를 타기보다 내가 먼저, 내 지역이 앞장서서, 그리고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지역내 설치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자세와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사회적 분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람직한 추모공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시설설치 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육구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추모공원의 설치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와 정비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종교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주민의 반발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해인사 대불' 소란의 교훈 자못 크다

특별기고

김병규

(문화일보 前 편집국장)

해인사 '세계 최대' 청동좌불 조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불교계 안팎에 남긴 교훈은 자못 크다. 무엇보다 해인사와 실상사의 스님들은 우리들에게 '원한을 쉬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원한은 오직 참음으로써만 이 해결할 수 있다는 진리를 이변 사태

기로 한 것은 온 국민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용단이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내 소멸되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 원한'의 마음을 쓴다(행인득사행 行忍得息憊)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양측의 이 같은 참회 노력은 사태를 진정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둘째, 흔히 말하는 상생(相生)의 이상적 형태를 스님들이 몸소 보여줌으로써 여론을 잠재우는 전기가 마련됐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상생'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원한, 속감(宿憾)등을 먼저 없애야 한다. 그 다음엔 서로가 화합하고 어울리게 하는 상화(相和)의 인자를 찾아야 한다. 또 미흡하고 못마땅한 점도 포용하면서 서로가 의지하려는 상경(相傾)의 자세와 서로가 믿고 따르겠다는 상수(相隨)의 정신이 필요하다. 비록 자운, 성철 스님의 임묵적 가르침에 대한 해석과 회향 방법은 다를망정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상성(相成)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셋째, 승단에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설득력있게 보여준 점이다. 민주주의 방식의 확산이다. 이번 사태의 수습과정에서 돌보인 장면



김병규

민중적이고 자발적인 결의를 통해 조계종의 최대 고질적 병폐로 여겨지고 있는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스님들의 이번 결의는 1천6백년 한국 불교사의 새로운 장면이었다.

넷째, 해인사 측은 청동좌불 건립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규모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일각에서 떠도는 오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 세계최대 청동좌불 건립 시주자

중 하나였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성의가 말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 점이 사태를 신속하게 매듭짓게 한 커다란 요인중 하나일 것이다.

다섯째, 이같은 오해를 증폭시켰다. 이 문제에 대해 해인사측은 뉴욕타임스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조계종과 함께 법률적으로 대응키고 했다고 한다. 이같은 오해가 더이상 국내 외에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인사 뿐 아니라 가야산 전체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안식처이며 마음의 영산으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당부하고 싶다.

다섯째, 이번 소란을 통해 대부분의 불자와 국민이 바라는 불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돼야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나마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이전 외형적 크기를 경쟁하는 불사보다는 내용과 깊이가 동시에 담긴 불사를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다. 시체말로 하자면 하드웨어적인 불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불사를 더 많이 바라고 있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 모두가 함께 확인했다. 법당, 불상, 범종 등을 크고 화려하게, 또 보기만 해도 신심이 우러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시대에 보다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스님들의 노후대책, 종합병원 등과 같은 복지부분이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눈요기 거리의 불사에만 열중할 경우 한국불교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불사를 추진하되 친환경적이어야 함이 포고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요즘 승가와 그 주변에서 묵언이 요구되는 계절이다.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자에게 묵언은 필수다. 그러나 사

바세기에 몸을 맡긴 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한 목민만이 최상일 수는 없다. 1천6백여 년의 긴 한국불교사에서 보면 피자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 순간 시끄러웠던 이번 일을 역사 속으로 영원히 묻어버리지. 특하면 난무하는 폭력성, 항상 잠재돼 있으면서 공격자세를 취하고 있는 분노, 증오와 함께 영원히 소멸시켜 버리자.

일찍이 원효 스님은 '크다'는 의미의 '대(大)'엔 6가지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첫째, '광(廣)', 한량없이, 경계선이 없을 정도로 '넓다'는 뜻이다. 둘째, '고(高)', 위없이, 높이의 끝이 없이 '높다'는 의미이다. 셋째, '장(長)', 끝없이 길다는

불사 추진 어떻게 불자와 국민 바람 재확인 기회

뜻. 넷째, 심(深), 밑 닿는데 없이 깊다는 의미, 밑바닥이 없을 정도로 깊다는 말이다. 다섯째, 다(多), 한없이 많다는 뜻이다. 셀 수도, 끝어안을 수도 없이 많다는 의미이다. 끝으로 승(勝), 그 어느 것보다 우월하다는 의미이다. 그 이상 더 좋고 뛰어난 것이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는 의미이다. (원각경)에 나오는 대(大)를 스님께서는 이렇게 해석, 가르치고 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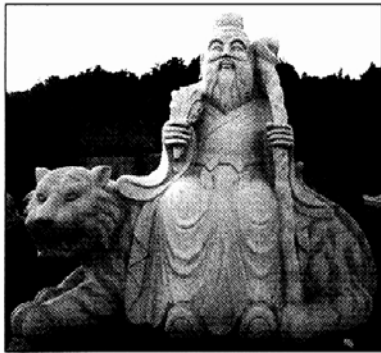
조그만 불사, 공(空)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불사에서 벗어나자.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큰 나라, 큰 절, 큰 스님, 큰 백성, 큰 불자가 되도록 공부 많이 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자. 출세간은 물론 세간에 있는 사람들도 큰 것을 향해 크게 보고 크게 행동하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진성 석재 예술원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문치된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육에 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청옥, 황옥, 백옥)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청 옥



백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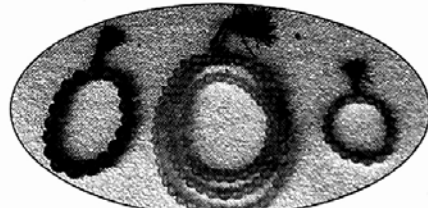
황 옥



대한민국 석공예 초대 명장



장승거북(청옥·화옥)



단주 · 1688년 · 함장주



두꺼비(청옥·화옥)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영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e-mail : LJU729@hanmail.net